보수주의와 리더십

작가 나성욱

일반적으로 진보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보수주의(保守主義)를 든다.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재의 새로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상과 태도, 언어자체 또는 근대사상사상 용어에서의 보수주의는 정치상의 일정한 정책과 직결되나, 그렇다고 기본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보수란 현상을 보전하여 지키는 것이다. 재래의 풍속이나 습관과 전통을 중요시하여 그대로 지킴을 말한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주장으로 혁신주의와 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로 정치상의 입장에 대해서 흔히 말하여 지고 있다 물론 정치적 보수주의와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있어서의 보수주의, 혹은 성격· 태도· 사고방식 등에 있어서의 보수주의와는 구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보수주의자가 반급진주의 혹은 과격주의 (radical)와의 대결이라던가 또는 반(反) 체계적이라고는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보수주의는 주로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는 제국주의 국가, 또 이를 식민지역 내지 근대적 여러 제도가 남아있는 여러 저개발국가에 있어서, 이들의 현상(現象)과 현 체제를 긍정하고 어느정도 옹호하는, 그 유지와 강화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체제의 국가 등에도 보수파라고 말하여지는 사람은 있지만 이들을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말한 보수주의는 그 바닥에 전통적인 체제· 질서· 문화에 대한 긍정이 있고, 또한 그들의 평가가 있고 인생관적으로도 보수주의를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변혁하려는 반체제파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내지 식민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자에 대한 정치적 대결의 입장을 특색으로 한다.

그 극단적인 것이 반동주의이며, 독재나 파시즘(fascism)등의 형태를 가진다. 반동주의(reactionism)는 구습이나 전통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경향이다. 물론 보수주의에는 이 반동에 친근성을 갖는 것이 있다. 또 자유주의나 급진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반체제파에도 어느 정도 친근성과 공감(共感)을 갖는 자유주의적 보수파(liberal conservatism)가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영국의 자유당 등은 이에 속하는 부류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보수주의는 때에 따라, 그 국토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流動的)인 것이다. 한 나라의 보수당

의 형태는 그의 적수(敵手)인 혁신정당이나 반체제파의 형태, 세력의 강약에 대응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혁신진영이 극도로 약한 나라에서는 보수당은 일관하여 반동적인 것이다.

가끔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있어서, 보수와 혁신 또는 급진 등을 사람의 연령· 성격· 성별· 환경에 의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청년은 래디컬로, 노인은 보수적으로 혹은 부유한 자와 지배하는 자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래디컬로. 그러나 현대의 보수주의의 내용은 사회적 세력은 오히려 사회의 구조와 정치적 세력의 여러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상한 친구라는 고붕(高朋:noble friends)과 달리 일본에서는 속어로 부하(部下)라는 뜻의 꼬붕(子分)과 대비하여 오야(親) 또는 오야붕(親分)이라 하여 소집단의 두목이나 왕초를 지칭한다. 원래는 거지나 넘다주이 들의, 무리를 기리키면서 동시에 집단의 우두머리를 의미하였다. 또 보스(boss)는 어떤 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친한 친구들 사이의 리더(leader), 곧 지도자에 대한 애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여 구성원에게 절대적· 비합리적· 인격적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리더쉽(leadership)은 지도자· 지도적 지위· 지도권을 뜻하며, 집단의 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원의 유대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제1차대전 후의 사회불안· 경제공황· 대량실업· 전쟁의 위협· 계급대립의 격화· 경영의 고도기술화· 압력단체의 분출 등이, 사회집단 내부에 리더쉽의 역할을 요청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나 기능의 증대가 그 본보기가 된다 사회의 거대화· 복잡화의 진전에 수반하는 인간관계의 해체와 대중의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가 강력한 리더쉽을 기대하기에 되었으나, 반면에 파시즘이나 독재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기사나 광고가 독자의 관심을 얼마나 끄는가를 조사하는 일이 리더쉽조사(leadership 調査)인데, 리더쉽 스코어라고도 한다. 발생 직후의 최신호를 가진 조사원이 면접하여 특정한 기사나 광고에 대한 관심도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답변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인법(再認法)이다. 또 힌트를 준 다음에 기억해 내도록 하는 방법이 조성상기(助成想起)이다. 그리고 독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방법, 곧 재생(再生)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리더제(leader 制)란 집단의 전체 멤버와 리더사이에 성립되는 사회적 통합을 말하며, 개체간의 사회관계로 성립되는 순위제(順位制)와 대비되는 말이다 조류나 포유류와 같은 고도한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들에만 보인다.

리더가 되는 개체는, 원숭이류에서는 순위가 1위인 수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조류의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